

“햇볕정책 지속됐으면 ‘연평도 사태’ 없었겠죠”

김대중 前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0주년 기념 이희호 여사 특별인터뷰

고 김 전 대통령의 동교동 178-9번지 자택 대문에는 ‘김대중’ ‘이희호’라고 쓰인 문패가 나란히 걸려 있다. 이 공동문패는 김 전 대통령이 아내이자 동지로 결을 지켜준 이희호 여사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담은 징표로 유명하다. 지난 9일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서니 생전 김 전 대통령이 정성을 다해 꾸미었다는 화단과 나무들이 기자일행을 반겼다. 거실에 자리한 책상 위에는 김 전 대통령이 미처 다 읽지 못한 듯, 붉은색 포스트잇

박진현 선임기자 jhpark@

-요즘 어떻게 지내신지요.

▲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해 동안 저와 평화센터를 성원해주신 분들에게 새해 연하장을 보내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만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에는 국립 현충원에도 다녀옵니다. (남편에게) 아이들 소식도 전하고 내 근황도 들려줍니다.

-올해로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지 10년이 됐습니다.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 그렇습니다. 엊그제 수상 한 것 같은데,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가 남편에게도, 저에게도 인생에서 가장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 ‘햇볕정책이 실패했다’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단호한 어조로) 그것은 잘못된 이야

기입니다. 햇볕정책은 첫 번째가 ‘튼튼한 안보’입니다. 실제 햇볕정책을 하는 동안에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햇

볕정책은 남북간에 군사적 대결이나 충돌

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이

면 됐지 또 전쟁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

렇다면 대화하고 협력하는 햇볕정책 외에

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북 당국이 하루속히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계신다면

이 끼워져 있는 책들이 놓여 있고, 창가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밝게 빛나고 있었다. 김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지 1년이 넘었지만 동교동 자택은 모든 게 그대로 인듯 보였다.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는 둘이 아닌, 이희호 여사 훌륭한 동교동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할까.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0주년을 맞아 남편의 유지를 이어가고 있는 김대중 평화센터(평화센터) 이희호(89)이사장을 자택 거실에서 특별인터뷰했다.

화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민족의 공멸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대재앙이 될 것입니다. 아마 남편

이 살아계셨다면 그렇게 호소했을 것입니다.

지 여사의 석방은 환영할 일입니다. 남편

께서도 하늘나라에서나마 수지 여사의 석

방을 보시고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최근 목포시를 비롯해 김대중 대통령

의 기념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

니다. 김 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한 바람이

있습니다.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올해 노벨평화상 10주년을 맞아 서울과 독

화해협력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이

면 됐지 또 전쟁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

렇다면 대화하고 협력하는 햇볕정책 외에

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북 당국이 하루속히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계신다면

고, 6·15공동선언, 10·4선언도 있습니다.

남과 북이 전쟁하지 말자, 평화롭게 살자

는 약속입니다. 저는 남북 7000만 주민들

이 가장 바라는 것은 남북이 서로 왕래하

고 협력하면서 오순도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김정일 위

원장은 지금 남북을 대표하는 분들입니다.

두 분이 마음 한번 잘못 먹으면 우리

민족은 공멸합니다. 그러나 민족을 위해

서, 후손들을 위해서 평화의 길로 가면 두

분은 후대에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더 이상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두 지도자가

결단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일 배틀린에서도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남편의 신앙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

도 있다고 들었어요. 목포나 광주는 남편

의 고향입니다. 남편을 회상하고 기억하는

사업들을 통해 민주·평화 정신이 계속 이

어지길 바랍니다. 고향 주민들에게 충분히

논의되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평화센터의 활동계획을 들려주신

다면?

▲김대중평화센터는 남편이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 민족번영을 목적으로 세운

기관입니다. 남편의 유지가 잘 이어지도록

사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내년에는 6·

15남북공동선언 11주년, 남편의 서거 2주

기 등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편

의 노벨평화상 수상 기념일에는 ‘김대중국

제평화회의’를 개최할 생각을 갖고 준비하

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민들에게 한 말씀 하

신다면?

▲남편이나 저는 호남인들에게 무한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호남인들은 위기 때마

다 남편을 일으켜 세워주고 격려해주었습

니다. 또 남한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고

향입니다. 남편에게 보내주셨던 것처럼 위

기에게 쳐한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더욱 힘을 모아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이희호 평화센터 이사장은

지난 9일 가까이서 본 이희호 이사장은 ‘컨디션’이 좋아보이지 않았다. 평화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노벨평화상 수상 1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면서 김 전 대통령이 자주 생각나는지 며칠 사이에 기력이 떨어지신 것 같다고 전했다. 아흔을 앞둔 나이 탓일 수도 있겠지만 47년간 함께 해온 남편의 빙자리에 힘들어 하는 미망인의 애틋한 마음이 느껴졌다.

특히 인터뷰 내내 고 김 전 대통령을 ‘남편’이라고 부른 이 이사장은 남편과의 추억을 회상할 때는 잠시 말끝을 흐렸다.

1922년 서울에서 태어난 이 이사장은 이화여고와 서울대 사법대학을 거쳐 미국에서 사회학 석사학위를 받은 당대의 대표적인 신 여성이다. 1962년 김 전 대통령과 결혼한 뒤에도 여성운동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에 힘썼다. 동교동의 공동문패는 여권 신장의 상징이자 평등 부부의 ‘룰 모델’이기도 했다. 지난 2008년에는 김 전 대통령과의 인생역정을 담은 자서전 ‘동행’을 펴냈다.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김 대통령의 빙자리가 가장 크게 느껴지실 때는 언제인가요.

▲집안 곳곳에 남편의 물건들이 그대로 있어서인지 지금도 항상 곁에 있는 것만 같아요. 함께 드라이브를하거나 놀구경할 때의 기억들이 문득문득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연평도 사태처럼 남북관계가 위기에 처할 때 생각이 많이 납니다.

-최근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올해 들어 젊은 병사들이 너무 많이 희생되었습니다. 부모들이 땅을 치며 통곡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격으로 젊은 병사들은 물론 민간인까지 목숨을 잃게 한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북한은 사죄해야 합니다. 짐짓방에 계시는 연평도 피난민들을 보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정부가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지금의 위기상황에 어떻게 대처하실 것 같으신가요.

▲햇볕정책을 한 이유가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북이 대화하고 협력을 계속해 왔다면 연평도 사태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북 더 이상 충돌·희생 없게

한반도 안정·평화 힘 모아야

겨울방학 최고의 가족 휴양지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유한 러

매혹적인 해양스포츠

원주민 티리피

2011년 1월 6 10 14 18 22 26 6회 취항

1. 광 관광 3박 4일 : 949,000원~

2. 광 골프 3박 4일 : 1,449,000원~(36홀부터)

· 특전 : 현지 미팅 & 세팅 / 특식 3회 : 스테이크, 자메이칸 그릴 BBQ, 침치회

· 포함내역 : 왕복항공권, TAX, 미팅 & 세팅,

1인원 여행자 보험, 시내관광, 전일정 식사

· 불포함 : 유류할증료, 가이드팀(성인20\$, 소인 10\$)

무안에서 떠나요~

태국 북부의 꽃 치앙마이!

중미술이 가득한 코끼리 흐라와!

원시 자연에서 맛볼 흐라!

매콤달콤한 치앙마이 화려한 보트

고성능 마을에서 맛나는

카렌족

무안 ↔ 치앙마이 전세기

2011년 1월 5/ 9/ 13/ 17/ 21/ 25일 6회 취항

1. 치앙마이 관광 4박 6일 : 1,149,000원~
2. 치앙마이 골프 4박 6일 : 1,299,000원~(72홀부터)

· 특전 : 골든 트라이 앱글 3개국 관광(태국/미얀마/라오스)
전통 이동수단 체험(당나귀 마차, 풍뎅이보트, 뚝룩이, 코끼리 트레킹, 우마차, 대나무보트)

· 포함내역 : 왕복항공권, TAX, 미팅 & 세팅,

1인원 여행자 보험, 시내관광, 전일정 식사, 기사가이드팀

· 불포함 : 유류할증료, 미얀마비자fee 40\$